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3가지 機能의 自動경첩

(株)錦山金屬 孫 鍾在 사장



(孫 鍾在 사장)

(株)錦山金屬의 「자동경첩」은 무명의 發明人 孫 鍾在 사장이 創出해 낸 發明商品으로 國立工業試驗院 20萬回 機能테스트에도 合格, 需要者로 부터 大好評을 받고있다.

發明企業人 孫사장은 發明과는 거리가 먼 經營學을 전공한 H그룹 상무였다.

당시(80年) 상무실의 칸막이 경첩이 삐걱거리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을 보고 發明에 몰두하여 자동경첩을 發明, 오늘의 (株)錦山金屬의 사장으로 부상했다.

이제 孫사장의 所望은 世界 第一의 경첩을 선보이는 것이다.

자동경첩의 發明과 함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까지 그만 두고 (株)錦山金屬을 設立한 것은 지난 82年 7月 15日. 주위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強行한 관계로 어떤일이 있어도 成功해야 한다는 強壓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때문에 무리한 投資로 倒産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發明과 經營에서 익힌 치밀한 作戰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孫사장이 發明한 자동경첩은 이제 實用新案 第27755號등 7件의 工業所有權으로 무장하고 國內市場은 물론 海外市場의 길도 열렸다.

지난 82年 및 84年 서울 國際博覽會 出品展示가 계기가 되어 輸出商談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國立工業試驗院 20萬回 機能테스트에도 合格한바 있는 孫사장의 자동경첩은 2개의 경첩판으로 구성되는 보통의 경첩에 있어서 경첩판 사이의 축볼음부에 첩등 동작이 유연하고 圓滑하게 회동령을 설치함과 동시에 각 경첩판에는 패지링과 이를 걸어줄 수 있는 돌출부들 각

기 형성하여 門이 열리는 관성력만으로도 간단 용이하게 門을 開放, 고정시킬 수 있게 하고 또 門이 닫히는 탄성강도가 증가되도록 2개의 코일스프링을 패지사이로 연결 설치하여 일체화한 것을 설치함으로써 門을 열고 닫을 때 유연하고 圓滑하게 동작되기 때문에 전혀 소음이 없다.

또한 자동으로 門이 닫히면서 90°, 135°, 180°에서 제동할 수 있다.

『아직 國內 類似製品이 없어 國內市場을 獨占하고 있지요.』

이 때문에 弘報등에 어려운 점이 많기도 하지만 展望이 더 없이 밝다는 孫사장의 說明.

그동안 주요 日刊誌 및 月刊誌에 광고도 많이 하였지만 그보다는 國內 各지의 건축물에 사용되어 그 性能이 認定되면서 注文量이 부쩍 늘고 있다며 환한 웃음을 터뜨리는 孫사장은 發明企業人 이라는게 더없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계속 發明에 몰두, 世界 第一의 경첩을 선보이고 말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여 주었다. (完)

第25回 發明教室 盛了

3月 8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3月 8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25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시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번에도 200여명이 參席…○
- … 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는 (株) 錦山金屬 孫 鍾在 社長과 韓國…○
- … 코스타 防水劑製造所 趙 奇鎬 社長の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 載日 辨理士의…○
- …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시멘트防水劑의 製造方法

韓國코스타防水劑製造所 趙 奇鎬 社長

20년 研究끝에 完전에 가까운 防水劑를 發明, 이를 商品化시킨 사 람이있다. 韓國코스타防水劑製造所 趙奇鎬社장은 물이 기름을 통과하 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건축관 련 防水업계에서 가히 革新的이라 는 평을 듣는 防水劑를 發明, 第20 회 發明의 날 行事에서 大統領 表 彰을 받았다.

이미 特許廳으로부터 특허권(特 許 第14082號 登錄)을 얻어낸 이 防水劑는 온도 변화에도 영향을 받 지 않고 모체콘크리트와의 접착력 이 강해 들뜨지 않도록 考案됐다. 그런데 趙社장의 코스타防水劑는 '83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 特 許廳長賞을 受賞한데 이어 84年에 는 뉴욕 國際發明展에 出品되어 영 예의 金賞을 受賞, 製品의 性能을 國內外에 과시한 바 있다.

趙社장이 이 防水劑 發明에 손을 댄 것은 지난 66년경. 42세때 민주 당 아산군 감찰위원장을 맡는등 주 로 정치활동을 하였던 趙社장은 3.15 부정선거 등으로 정치와 청년 운동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60년에 새로운 인생살이를 시작했고 그런

지 6年만이였다.

6年중 처음 3年 동안은 구두약이 나 염료등의 시약 조파라핀 등을 만들어 팔았고 나머지 3年 동안은 광물성 접착제를 만들어 팔았다.

구산소다를 활용한 이 광물성 접착제는 몇년전까지 20餘年間 趙社 장의 생업이 되어 왔다. 그는 日本 滿蒙전문학교 재학시 東京 오우찌 화학공장에 전시봉사를 나간 경험 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귀중한 자 산이 될줄은 몰랐다.

63년부터 3年餘 접착제 장사를 하던 趙社장이 돈을 좀 모을 부럽 인 66년경에 거래하던 집장사들이 좋은 방수제를 좀 만들어 줄 수 없 느냐는 부탁을 자주 해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회상한다.

66년경부터 10餘年동안은 이른 규명과 함께 우리나라와 日本 등에 대한 기존의 방수제 현황과 問題點 을 調査하는 한편 자신이 만든 試 製品으로 실제 공사를 하기도 했 다. 온갖 기계와 시멘트조각 시약 등으로 가정집 25평 지하실이 온통 防水實驗場이 됐다. 형태로 봐서 기존방수제가 액체기 분말형으로된 점에 착안, 연고형이라는 새로운



〈趙 奇鎬 社長〉

구상을 하게 됐다. 연구 10年만인 지난 76년경부터는 아예 접착제 사 업을 포기하다시피 한채 이 防水劑 發明에만 몰두했다. 시공시험결과 를 분석하고 化學實驗을 계속했으 며 추운 겨울에는 試驗室을 아예 안방으로 옮기기도 했다. 81년에 와서는 자신의 發明이 特許권이 라는 확신이 들었고 特許廳에 特許出 願을 하면서 商品化를 모색했다. 趙社장은 特許廳에서 特許(第14082 號)를 얻어내면서 商品生産을 시작 했다. 20年만의 각고끝에 商品化에 나선 趙社장은 오늘도 實驗室(서울 하월곡 2동 15-21)에서 特許防水 劑 改良研究에 몰두하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W>